

토속신앙과 상담의 관계: 점복문화를 중심으로*

장 성 숙[†]

가톨릭대학교

국가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더 커진다. 그러므로 문화 특수성을 고려한 다문화적 상담접근은 상담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필수적이다. 한국의 주요 종교에서 유교가 문화의 표층에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했다면, 무속은 그것과 상반된 문화의 심층에서 한국인의 삶에 비제도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한국식의 상담기능을 해온 무속의 대표적 행위는 점복이다. 그리하여 점복문화에 대한 고찰은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인을 위한 한국적 상담모형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점복의 역기능으로 운명론과 허무주의에의 몰입, 사회적 불안조성, 비용의 낭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순기능으로 조속한 처방, 판단에 대한 준거, 심리적 해방, 삶의 설계적 수단, 재미 및 오락과 등이 있다. 이러한 점복문화에서는 인간을 관계내적 존재로 보고, 현세 중심적 관점을 지녔고, 해결방안으로 관계회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담과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점복은 상담과는 달리 내부귀인보다는 외부귀인을 하고, 역동에 대한 이해보다는 외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돕는이와의 관계체험보다는 상거래형식의 단발성을 띤다. 이러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점복은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형태의 상담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상담자가 참작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 그것은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의존욕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문제에 대한 내부귀인을 시도하여 책임을 강조한다면, 상담자는 개개인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요어 : 다문화적 상담접근, 문화적 특수성, 점복문화, 내부귀인, 외부귀인

* 이 연구논문은 2005 학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함

† 교신저자 : 장 성 숙,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2168-2891, E-mail : changss312@hanmail.net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어떤 각도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을 바라는데, 이러한 기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내담자는 상담자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자가 상세히 묻는 것조차 싫어한다. 과연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책임을 다하게끔 도와주느냐하는 것이 상담자의 관건이다. 즉 그들이 상담자에게 갖는 기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부응해야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 문화를 전파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상담이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촉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상담의 본질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거나 문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면 적극적이지 않는 상담자에 대해 내담자는 불만을 갖는다. 결국 ‘상담자의 역할’로 집약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상담의 효율성과 직결되어 있다. 역할이라는 것은 각 사회의 가치기준에 관련된 것으로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기존의 정통적인 상담접근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통찰지향적인 장기상담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상담을 더 선호한다(김정택, 1995). 서양에서도 점점 단기상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백인보다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선호하며, 상담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Leong, 1992). 이렇듯 문화에 따라 상담에 대한 내담자들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변인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이 증대될수록 내담자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다(Atkinson, Kim, & Caldwell(1998).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내담자들이 어떤 문화적 배경 아래 상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최준식(1998)이 주장했듯이 종교는 문화의 정수로서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종교의 영향부터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서는 특히 토속종교로서 한국인의 태도형성에 기저를 이룬 무속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무속은 토속성이 진한 신앙으로 한국인의 영성에 내재해오면서 한국문화의 핵심적 정신을 이루어왔기 때문이다(오수성, 1997; 황루시, 2000).

그런데 무속이 다양한 내용과 의례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점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답답함을 느낄 때면 으레 점집을 찾아가보고 싶을 정도로 점복문화는 대중화 되어있기 때문이다(김영재, 2004). 점복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토양과 정서와 부합되는 한국적 상담모형의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문화주의적 상담의 필요성

그동안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동양인이나 서

양인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가정 아래 기존의 우수한 상담이론들이 보편적인 일반원리로 구성되어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그대로 한국인 내담자들에게 적용해왔다. 이러한 가정은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유사한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서 얼마만큼은 타당하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특히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문화는 지역마다 다르다. 사실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상담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Kelly, 1989). 예를 들면, 실제 상담에서 개별화, 개인주의, 자아의 독립성, 책임성 등을 주요 개념으로 다루며 그것들을 성장의 지표로 삼는다. 관계지향적 상담이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인간중심상담, 실존주의, 형태치료와 같은 접근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서구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선택의 자유, 자기실현과 같은 것을 목표로 삼는다. 즉 상담자들이 역점 두는 대부분의 것들은 서구문화에 입각한 서양인들의 가치관을 내포한 것들로서 가족중심의 집단주의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Kim, Atkinson, & Umemoto, 2001). 상담 현장에서 주축을 이루는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지-행동적 접근 등과 같은 주요 상담이론들은 모두 서구문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들이다.

반면에 동양사회에서는 전체 속으로 개인을 흡수하고자 하는 집단주의적 가치 아래 자유나 평등보다는 상호 의존과 조화를 더욱 강조한다 (Corey, 1999).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화권의 내담자들에게 서양인들에게 적합한 상담접근법들을 여과 없이 실시할 경우에는 문화적 주체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상담효과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미선, 1996). 문화적 요인이 상담에 대한 태도, 상담자의 전문성, 그리고 상담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재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Coleman, 1998).

그런데 우리 상담자들은 그동안 서구에서 발달된 상담분야의 학문내용은 적극 받아들이면서 그 이론을 낳게 한 인식의 틀에 해당되는 문화적 맥락은 간과해왔다. 그 결과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특수성은 배제된 채 보편성만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상담자들은 서양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격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곳곳에서 문화적 요인에 민감한 상담자가 문화적 중립성을 지닌 상담자보다 내담자들을 더 효율적으로 돕는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Abreu, 2000).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상담자가 문화에 대한 인식 없이 상담을 했을 때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Hanna, Bemak, & Chung, 1999). 이런 추세에 의해 다문화적 상담접근은 정신역동적 접근, 행동주의적 접근, 인간중심적 접근에 이어 제4의 세력으로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상담에 있어서 문화변인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것이다.

이렇게 다문화주의 상담이 제4의 접근으로 확장되면서 미국의 백인 중산층 문화에 뿌리를 둔 상담접근들이 도전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문화주의 상담을 기존의 접근법들과 경쟁하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다문화주의적 상담접근이 문화변인을 강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존의 접근법들과 차별을 보이긴 하지만, 동시에 각 지역의 문화특수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의 접근들을 보다 풍부하게 도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Madonna, 2002). 상담자들이 문

화차이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기존의 상담이론 및 접근들은 더욱 확장되거나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한 예로, 인간중심 상담접근에 남아프리카라는 특정 문화의 치료접근을 통합함으로써 즉, 기존의 이론이 강조하는 문화보편적 가치에다 그 지역의 문화특수적 가치를 포함시킨 보다 풍요로운 인간중심적 상담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Spangenberg, 2003).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함께 도(道)에다 서양의 정신치료를 결합시킨 도정신치료(이동식, 1986, 2004)나 불교적 상담(윤호균, 2001)이 개발되는 등 한국적인 상담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굿이나 점복문화와 같은 무속 현상에 나타나는 치료적 요인을 상담전략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재, 2004; 오진미, 2001, 최재선 1994). 세계화의 추세가 가속화될수록 더욱 문화적 정체감을 확립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필요하고도 다행한 일이다.

동양권의 내담자들에게 기존의 상담이론을 적용했을 때 그것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상담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동양권의 내담자들은 다른 문화권의 내담자들보다 공감적 이해를 바라는 등 차이를 보이며 특히, 일본계 미국인들은 보다 직접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주고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상담자를 더 원하였다(Kim, Li, & Liang, 2002). 상호의존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인지적인 측면보다 감정표현을 강조하는 정의적 상담기법을 한국의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한다(서영석, 안창일, 2003). 이러한 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상담자들은 우리문화

가 지닌 특수성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서구에서 발달된 상담이론과 기법을 거의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관점의 틀이 동양의 것과 서양의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 상담은 효과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장성숙, 2004).

한국인의 특징과 종교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은 한국사회를 자신의 삶보다 내집단의 생활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 사회라고 규정한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행위의 단위를 개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집단으로 보느냐하는 점인데(Triandis, 1995),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다양한 집단에 대하여 차별성을 두어 집단과 개인이 충돌할 때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킨다는 집단주의의 특징을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한규석(2002)은 우리 사회가 집단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집단주의라기보다 관계중심의 집단주의라고 한다.

관계주의로 일컬어지는 우리 문화에서 관계성립은 인연이나 팔자와 같은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와의 관계가 비자발적이고 영속적인 경향을 띤다. 교류는 개인의 성향보다 개인의 역할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의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과 그 망 속의 위치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한규석, 2002). 그런데 관계주의적 집단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특성은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신수진, 1998).

집단의 최소 단위인 가족 내에서 한국인은

연고주의, 서열주의, 인정주의, 현세주의 등과 같은 특성을 발달시키는데(최상진, 2002), 우리 문화의 특성에 근간이 되는 이러한 가족주의는 일반적으로 유교적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고유문화가 무엇보다 혈연을 중시하는 문화이고, 그것이 유교에 의해 좀 더 강화되었을 뿐이라고 한다(홍일식, 1996). 즉 우리 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 토속종교 무속은 본래부터 가족의 확대개념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핵심을 이루는 가치관 형성은 대체로 종교의 몫이라고 하는데(최준식, 1998), 우리나라에서 크게 영향을 떨친 종교로는 무교(무속), 불교, 유교(유학), 기독교를 들 수 있다.

북방불교로 일컬어지는 대승적 사상을 담은 한국의 불교는 해탈을 강조하는 종교로서 초월중심의 사상을 펼쳐왔다. 이러한 불교는 매우 체계화된 고급 종교로서 일상의 구체적인 문제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갈등이나 문제를 고차원적인 인식의 문제로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내세관이 분명한 하나의 종교로서 상담에서 응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고급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에 기초한 불교적 상담은 매우 균형 잡힌 내담자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것이라고 본다(장성숙, 2002).

기독교는 자유, 평등, 등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사회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나아가 오늘날의 민주화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비교적 신종교로서 아직도 여러 면에서 우리 전통과의 융화가 숙제

로 남아있는 상태다. 즉 한국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영향력과 함께 기독교가 쉽게 유입되지는 하였지만, 토착화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서 내면화된 영향력을 거론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최준식, 1998).

유교는 형식이나 권위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에 개인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저해하거나 정신건강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론화된 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 의식부분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가르침이 유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문화의 축이 유교 성리학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사고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 및 사회윤리는 철저하게 유교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조공호, 2003). 즉 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및 현실세계를 중시하는 유교사상은 특히 남성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합리성, 질서성, 체계성, 권위성과 같은 속성을 펼치면서 문화의 표층에서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이광세, 1998a).

그런데 이러한 유교의 영향 못지않게 살펴 봐야 할 것이 무속의 영향력이다. 유교가 표면에 나타난 의식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주었다면, 무속은 그것과 상반된 위치인 문화의 심층에서 한국인의 삶에 비제도적이고 자연적인 방식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왔기 때문이다(황금중, 2002).

한국인의 무속성

우리의 토속종교인 무속은 일찍이 불교의 유입으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는 불교와 타협된 혼합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 유학을 국교로 표방한 조선조에 와서는 무속인을 천민으로 취급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의식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민중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무속신앙을 탄압했다. 해방 이후에는 서양식 모델에 따른 현대화의 추진에 의해 무속행위는 미신으로 간주되어 타파 대상이 되고 말았다(박일영, 1999). 그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상적인 삶에 어려움을 느낄 때, 점복인을 찾으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기복적인 미신으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여겨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갖는다. 더구나 과학적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는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무속의 초합리적 속성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러한 홀대를 받아왔던 무속이 요즘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새로이 번성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든가 또는 사회가 혼탁해져가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현상만은 아니다. 눈부신 과학 발전을 이룩하면서도 동시에 무속으로 회귀하는 것은 한국문화의 핵심적 정신이 무속적이기 때문이라든가 (Kim, 1991), 또는 침예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초합리적인 이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선 현재 무속의 추세를 보면, 굿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점복에 종사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있다(이용범, 2001). 점복인 중에는 신병을 앓아 강신체험을 하고 내림굿을 받아 활동하는 강신무와 세습적으로 익혀서 활동하는 세습무 또는 순수하게 역학의 학습을 통해 점복자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신과 교통하는 점쟁이나 전형적인 무당을 보는 시각이 비판적이기 때

문에 강신무는 주는 반면, 역리를 통한 점복인은 증가하며 학력도 고학력 현상을 보이고 있다(김영재, 2003).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2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많은 점복인이 있으며, 점복인을 찾는 사람들도 10명중 4명이나 될 정도라고 하니 대단한 숫자임에 틀림없다(조용현, 2002). 1994년에 조사된 한국갤럽의 보고에 의하면, 직접 돈을 내고 점을 본 사람은 전체 인구의 38.3% 였고 최근 일 년 동안 직접 돈을 내고 점을 본 사람은 전체 인구의 18%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 때문인지 최근에는 제도권 대학에서 동양학 대학원에 명리학과가 신설되어 점복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박효순, 2002; 조규문, 2002).

최근 들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무속의 영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상과 자손이 한 덩어리로 개인의 삶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의 생명으로 살아 이어진다는 일종의 종족적 부활의식을 한국인은 암암리에 갖고 있다(신월균, 1996).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겨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른 것으로 분리하기보다 죽음은 다만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관의례일 뿐이라고 여기며, 사람은 죽은 뒤에도 산 자에게 끊임없이 개입한다고 믿는다(장주근, 1996). 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문제는 당사자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거나 그 사람에게만 귀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넓은 관계망 속에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고, 이러한 취지에서 효(孝)를 비롯한 조상숭배 사상을 발달시킨다(오진미, 2001).

셋째, 종교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기복적이고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현세중심의 가치관이 팽배해 있다. 특히 한국인은 유일신에 대한 개념이 약한 편이고, 조상신을 비롯한 귀신을 정성에 감복하는 인간중심적인 형태로 인식해 임의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다(오진미, 2001).

넷째, 논리와 합리를 넘어선 원용적 조화를 강조하면서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도 총체적이고, 대립되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한국인은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불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편이다.

다섯째, 삶의 엄숙함을 추구하는 유교와는 달리 질서를 일시적으로 파괴하면서 삶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난장성 즉, 무구조적인 상태를 한국인은 즐겨 찾는다(신월균, 1996; 황금중, 2002).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난장성은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불리는 신바람이나 낙천성과도 통하며, 이것은 일상생활의 음주가무를 비롯해 대규모의 집회라든가 격렬한 시위 등에서 역동적인 힘으로 표출되곤 한다.

여섯째, 피지배층의 애환을 담고 전승되어 왔던 무속 자체의 영향 덕분에 한국인의 정서에는 비정상적이고 주변적인 삶과 죽음에 대해 강한 관심과 연민을 갖는다. 한국인에게 발견되는 정한의 감정, 농후한 인정, 미운 정에 대한 미련 등도 이런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점복의 제반 기능

널리 알려진 것처럼 무속은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 속성이 짙은 기복추구의 종교다. 그

러나 기복추구에 대한 동기는 무속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만약 기복적인 모티브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신앙차원의 종교가 아니라 철학 내지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이흠, 1986).

한국인은 치병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기복이나 액막이, 죽음이나 재난, 사업의 성패, 비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대처, 심지어는 물건을 찾는데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삶의 문제를 무속 의례에 의존해왔다(이용범, 2003). 따라서 무속인은 한국식의 상담자로 갖가지 애환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삶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한국식의 상담자 역할을 해온 자들은 무당과 점복자인데, 의례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곳은 점점 약식화되거나 쇠퇴해가는 추세이다. 반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복은 오히려 대중의 일상생활에 더욱 파고들어 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할 정도다.

점복에 대한 정의는 협의와 광의의 의미로 나눌 수가 있다. 협의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자 할 때 신비로운 존재에 의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점복이 개인적인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라고 했을 때 따르는 광의적 의미로는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자 어떤 사건이나 일의 길흉화복을 판단하고 예측하고자 하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판단행위'라고 한다(정승안, 1997). 점복에서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삼는 것은 시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주팔자와 같은 역(曆),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곳에는 신이 있다는 관념에서 비롯한 신(神),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음양(陰陽)과 5행(五行)의 작용, 하늘과 땅

을 상징하는 간지(干支)와 이것이 오행에 의해 회전하는 60갑자(六十甲子)와 같은 것들이다. 즉 간지와 오행 그리고 내적 논리로서의 신에 대한 관념이 역(曆)을 통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점복의 종류는 점을 행하는 주체와 대상 그리고 점복에 이용되는 도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렵고, 또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그래도 오늘날 흔히 시행되는 점복의 종류로는 주역점, 사주점, 성명학, 관상, 수상, 풍수, 신점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승안, 1997).

사회현상으로 실재하는 점복이 백안시되는 배경에는 운명론과 허무주의에의 몰입, 사회적 불안조성, 비용의 낭비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측면들이 있다(정승안, 1997). 즉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개선하려하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며 무기력에 빠져있거나, 모든 문제를 조상이나 귀신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흐리게 할 소지가 점복에 있다. 뿐만 아니라 큰 사건에 대한 사회적 예언들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해짐으로써 사회적인 위기감이나 불안이 조성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유언비어 형태로 악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의타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점술에 의지해 해결하려하기 때문에 굿이나 부적 또는 비방을 위해 과도한 비용을 쓰게 되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점복에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처방을 내려주는 것, 카타르시스와 심리적 해방, 판단에 대한 준거 및 대비, 재미 또는 오락으로서의 기능 등이 있다(정승안 1997). 이것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위기에 봉착하면 어딘가에 의지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이 때 점복인은 부담 없이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준다. 그러면 점복인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게끔 비방이나 처방을 내려준다. 그러면 문복자는 그것의 효율성 여부를 떠나 뭔가 나름대로 조취를 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안심하게 된다. 이러한 것은 상담에서 내담자에게 여유를 찾게끔 해주는 지각된 통제감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둘째, 딱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답답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점을 보러가서 점복자에게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해 하소연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 점복인은 속이 후련하도록 잘 알아들어주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거리낌 없이 점복인을 찾아 위안을 받곤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정화 내지는 환기와 같은 상담의 기본 기능이 놀랍도록 진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셋째,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설사 그것이 불안에 뿌리를 둔 것이라 할지라도 상담에서 말하는 대응전략을 미리 챙기는 것으로써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갖게 해준다. 나아가 이러한 준비성은 각 개인에게 삶을 보다 지혜롭게 여유롭게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어 자존감을 높여준다.

넷째, 무한 경쟁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틀에 짜인 일상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오락을 필요로 한다. 별자리점이나 꽃점을 비롯하여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오늘의 운세나 컴퓨터 점이 그렇게 성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오락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락적 기능은 일종의 이완감을 주는 것인데, 진지함이 강한 상담에서는 다른 형태의 이완감을 갖게 한다. 그것은 내담자가 어디엔가 가서 기댈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든든함이다.

상담과 점복문화의 비교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체계화된 방법이 현대의 상담이라면, 점복은 다소 덜 조직화된 재래적인 도움행위이다. 점복이 처방을 내려주고, 답답함을 풀어주고, 판단의 기준이나 예방책을 강구해주고, 이완을 통한 재충전을 도모하는 등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주며 토속적인 상담기능을 해온 만큼, 점복에 내재된 상담적인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담이나 점복 모두는 사람들의 적응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들로서 이 둘 사이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다.

우선 서로의 유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점복에서도 인간을 관계내적 존재로 본다(황금중, 2002). 인간을 관계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조상을 포함한 가족이라는 집단관계 속에서의 부분자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상담에서 개별화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성격을 일차가족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 특히, 모자간의 애착관계라든가 일차 가족관계를 기본으로 삼으며 무엇보다 그것을 비중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둘째, 점복에서의 목적은 초월적이거나 내세

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을 중시하는 현세 중심적인 것으로 다름 아닌 잘 살고 싶다는 욕구에 비중을 둔다(황필호, 2002). 지금 여기를 중시하는 현세지향은 상담이 영적이거나 초월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담자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에서의 삶 즉, 관계에의 적응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다.

셋째, 점복에서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갈등이나 문제가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상을 포함한 가족 간의 관계회복을 강조한다(오진미, 2001). 그리하여 억울하게 죽은 조상을 위해 굿을 하기도 하고, 선조의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상담에서도 모든 갈등의 뿌리는 성장시절에 체험한 가족 내의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가족에 대한 적개심을 풀어줌으로써 화해하고 포용하게끔 한다.

넷째, 점복행위는 나름대로 특별한 기능을 지닌 점복자에게 의지해서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 해결방안의 효력 여부도 중요하지만, 대개의 경우 방안 그 자체가 고통을 경감시키는 위약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가 일단 상담자에게 정서적인 의지라도 하고픈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점을 보러가는 사람들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점복자가 직접적인 개입이나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기를 바란다. 이것은 동양권의 내담자들이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즉각적인 문제해결적 상담을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Kim, Li, & Liang, 2002), 단기적인 횡수의 상담에서 상담자가 적극 개입해 지지 및 조언을 해주는 식의 문제해결중심의 상담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여섯째, 점복자를 찾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에 따르는 모든 조짐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는 예언적 기능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길흉화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를 맞이하기 전에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삶을 꾸려가고자 점을 보러간다(최운식, 1994).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증상의 경감이나 정서적 의존과 같은 목적보다 부족한 자신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상담자를 찾아 자신을 되비추어보고자 하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복과 상담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점복에서는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자기에게 두지 않고 조상이나 풍수지리와 같은 외부 대상에게 돌린다. 그리하여 점복을 즐겨 찾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외적이거나 초자연적인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외부귀인을 주로 한다(김영재, 2004). 그리고 해결방법에 있어서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다기보다 부모에게 응석이나 때를 쓰듯 조상신을 비롯한 다양한 귀신들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문화 간에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Narikiyo & Kameoke, 1992), 내담자의 문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애를 쓰면서 갈등이나 문제의 타을 가능한 한 내부에서 찾도록 즉, 자신에게 돌리는 내부귀인을 하도록 강조한다.

둘째, 점복에서는 어떤 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하지만, 상담에서는 문제해결에 비중을 두는 단기상담이라 할지라도 대개의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역동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내담자의 성장사를 살피면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내담자 자신에게 돌리고, 해

결에 대한 책임 역시 자신에게 있음을 납득시키며 내담자 자체의 성장에 강조점을 둔다.

셋째, 점복에서는 단골관계가 형성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복자와 문복자 사이에 신뢰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상거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자기를 새롭게 조망하고, 마침내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일련의 과정 자체를 결정적인 치유인자로 꼽을 만큼 관계체험을 강조한다. 즉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관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상담자가 대상이 되어주고, 나아가 그것을 밖에서 일반화하도록 격려한다.

넷째, 점복문화에서는 문제의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기보다 팔자나 운명에 돌리기 때문에 사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이 위축감이나 죄책감과 같은 심리적 부담 없이 점복자를 찾는다. 반면에 상담문화에서는 이상이나 양심의 개념이 명확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레 부담을 느끼고, 상담자 계층이 중산층의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저학력자들은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맺는 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문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거의 상식화 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다른 가치를 지닌 집단 간 접촉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문화 간의 수렴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경과에 따른 수렴현상이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고, 나라 사

이의 문화적 차이는 정체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Hofstede, 1991).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 기술은 우선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먼저 이해하고, 대상인 타인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다.

문화의 핵심인 가치관은 특히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전제 아래, 한민족과 고락을 함께 해온 무속에서 무속의 대표로 간주되는 점복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 문화의 표층에 유교적 색채가 짙게 배여 있다면 무속은 문화의 심층에서 유교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움을 특색으로 하는 무속의 점복문화는 엄격성을 띤 유교의 이성적 특성과 상호 대립하는 보안관계 속에서 이중구조를 형성하며 우리문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황금중, 2002). 이러한 점복에서는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보면서, 철저히 현세중심적인 가치에 목적을 두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상담과 유사한 관점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조속한 해결책, 심리적 환기, 판단에 대한 준거 및 설계, 오락 기능 등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점복이 한국인의 애환을 달래 온 한국식의 상담방법이라고 하여 그것을 체계화된 서양의 상담이론에 버금갈 정도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점복은 원시적이거나 덜 조직화된 것으로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밖에서 찾는 외부귀인을 하고, 비방을 알려주는 식의 외부통제를 하며, 점복자와 문복자 간의 관계도 대부분 상거래 형식으로 단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점복은 상황을 극복하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에 비해 상담은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급적 내담자 자신에게 돌리는 내부귀인을 강조하고, 해결방법 역시 본인 자신에게 있음을 납득시키며, 문제를 가급적 본인 자신이 풀어가도록 함으로써 내담자의 성장에 역점을 두는 체계화된 접근방식이다. 설사 문제해결중심의 접근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상담접근에서는 내담자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체적이 되도록 내담자 자체의 성장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고정적 정서체험을 강조하며 상대를 신뢰하고 자기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는 정화를 이룩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각도의 조망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는 것이다 (Yalom, 1995).

그러나 점복은 민중의 생활 속에 가장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한국식의 상담방법으로 문화 특수성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상담자들이 참작하거나 수용할 내용들이 나름대로 있다.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우선하는 것은 점복자가 문복자에게 미온적이지 않는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비록 언저리에 있어왔다 할지라도 점복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동시에 한국인의 태도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막상 어려운 일에 봉착하거나 미지에 대한 불안이 엄습할 때 사람들은 낙담 속에 빠져들기보다 어떤 형태로든 방법을 있을 거라며 낙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한다. 비교적 이렇게 낙관하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자들이 상담의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 적극 부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의존욕구를 충족시켜준다면 사람들은 상담실의 문턱을 그리 높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점복자가 문복자에게 그것이 틀린

것이든 맞는 것이든 어떤 처방이나 방안을 마련해주는데,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변형해 상담자가 가능한 한 방향제시를 해주고자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상담자를 찾아가 할 것이다. 사실,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인식 아래 내담자에게 명료화 내지는 반영만을 주로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는 오히려 우왕좌왕하며 실망하여 떠나버린다. 아직 스스로 선택할 만한 힘이 없을 때는 내담자가 시행착오를 덜 하도록 부모처럼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도 우리 문화권의 내담자들에게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윗사람은 기꺼이 아랫사람을 지도편달해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공경을 다해 따른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암암리에 상담자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고 기대한다.

그렇다고 시종일관 상담자가 내담자의 의존욕구를 채워주면서 모든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내담자를 준비시켜 결국은 내 부귀인을 해서 본인이 처한 현실에 책임을 다하도록 즉, 성장을 향해 발돋움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진정한 변화는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적으로 자기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담자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상담자의 역할이며 과업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도 가능하리라 보다.

참고문헌

- 김영재 (2004). 점복문화 배경의 여성 내담자를 위한 상담전략의 모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택 (1995). 단기치료 장혁표 외 13인 현대 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일영 (1999). 한국 무교의 이해. 서울: 분도출판사.
- 박효순 (2002). 교통사고일진의 명리학적 분석 : 자동차사고의 실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영석, 안창일 (2003). 문화가치에 대한 충실도, 성격유형 및 상담경험이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03-421.
- 신월균 (1996). 한국의 민속사상. 서울: 집문당
- 오수성 (1997).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이해 현상과 인식, 21(1), 149-162. 한국인문사회과학원.
- 오진미 (2001). 굿의 치료적 과정을 적용한 상담 모형의 구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이흠 (1986). 신념유형으로 본 한국종교사. 서울: 집문당.
- 윤호균 (2001). 교사, 집착 그리고 상담: 상담접근의 한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18.
- 이광세 (1998a). 유교를 다시 생각한다. 동양과 서양: 두 지평선의 연합. 서울: 길.
- 이동식 (1986). 상담의 동양적 접근. 한국 대학 카운슬러 협회편).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동식 (2004). 도정신치료와 서양정신치료 국제

- 포럼. 한국정신치료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 이미선 (1996). 한국적 상담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범 (2003). 근현대 한국무속의 역사적 변화. *종교연구*, 30, 101-154.
- 조규문 (2002). 십간섭이지의 명리학적 이해.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궁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 서울: 나남출판
- 조용헌 (2002). 사주 명리학 이야기. 서울: (주)생각의 나무.
- 장성숙 (2003). 한국문화와 현실역동상담의 상담자-내담자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147-160.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장주근 (1996). 조상숭배사상. 한국의 민속사상. 서울: 집문당.
- 정승안 (1997). 한국사회에서 점복의 사회적 의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 (2002).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
- 최운식 (1994). 점복신앙의 의미와 원리. *국제어문*, 16, 363-371. 국제어문학회.
- 최재선 (1994). 곳의 상담현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준식 (1998).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일식 (1996).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서울: 정신세계사.
- 황루시 (2000). 민속신앙생활. 최인학 외, 한국민속학 새로 읽기. 서울: 민속원
- 황금중 (2002). 한국 교육사상 전통의 이중구조. *한국사상과 문화*, 15, 270-317.
- 황필호 (2002). 한국무교의 특성과 문제점. 서울: 집문당.
- Abreu, J. M. (2000). Counseling expectations among Mexican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counselor ethnicit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8 (3), 130-143.
- Atkinson, D. R., Kim, B. S. K., & Caldwell, R. (1998). Ratings of helper roles by multicultural psychologists and Asian American students: Initial support for the three-dimensional mode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4), 414-423.
- Coleman, H. L. (1998). General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26, 153-160.
- Corey, G. (1999).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th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rooks Cole.
- Hanna, F. T., Bemak, F., & Chung, R. C. Y. (1999). Toward a new paradigm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77, 125-133.
- Ho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 나은영·차재호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 Madonna, G. C. (2002). Predictors of satisfaction with counseling: Racial and ethnic minority clients' attitudes toward counseling and ratings of their counselor's general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255-263.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People around the world* (2nd. Ed.). Belmont, CA: Wadsworth.
- Kim, Y. A. (1991). *Han: from brokenness to wholeness*.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at Claremont.
- Kim, B. S. K., Atkinson, D. R., & Umemoto, D. (2001). Asian cultural values and counseling process: Current knowledg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Counseling Psychologist*, 29, 570-603.
- Kim, B., Li., & Liang C. (2002). Effect of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session goal, and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on career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42-354.
- Leong, F. T. (1992). Guidelines for minimizing premature termination among Asian American clients in group counseling.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s*, 17, 218-228.
- Narikiyo, T. A., & Kameoke, V. A. (1992). Attributions of mental illness and judgements about help seeking among Japanese-American and White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3), 363-369.
- Pederson, P. (2000).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3rd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Spangenberg, J. J. (2003). The cross-cultural relevance of person-centered counseling in Postapartheid South Africa. *Journal Counseling & Development*, 81, 48-53.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l: Westview Press.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United States: Basic Books. 최해림·장성숙 (역).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원 고 접 수 일 : 2005. 5. 25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21

게재결정일 : 2005. 8. 5

The Relationship of Shamanism and Counseling: On the Basis of Fortune-Telling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crease by the frequent interchange of each nations's culture. Therefore multicultural counseling which places great deal of weight on the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uniqueness is indispensable to enhance the counseling effect. Confucianism and Shamanism are the most important faith to the Korean among various religions in terms of which standard of value is the core of culture and is related with religion. Shamanism in Korea has been influenced on the Korean deeply in the way of unsystematic and unconscious manner while Confucianism has dominated the consciousness of Koreans in a systematic and organized way. The typical forms of Korean Shamanism are a practices of exorciser and fortune-telling (divination), which have played a role as counseling in its own way for a long time. Nowadays fortune-telling is more prevalent in contrast with the decline of the exorcism. Studying fortune-telling from various angles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 and to enhance counseling effect, because most Koreans try to touch with fortune-teller whenever they are placed on difficult situation. Even though there are bad effect of fortune-telling such as fatalism, nihilism, social anxiety, and waste of money, there are many advantage such as an immediate answer, a reference of judgment, psychological relief, a means to a plan for life, and an amusement. However, there are similarities between counseling and Shamanism in terms of focusing inter-relationships among people, emphasizing the present life, and underling the recovery of relationships to solve the problem. In spite of such similarities, Shamanism makes a client do external attribution, external action, and business connection with fortune-teller while counseling makes a client do internal attribution, understanding dynamics, and experiencing relationships. Therefore, a counselors need to meet a client's dependent need, to lead a client to do internal attribution, and to make a client responsible for problem and, if then, counseling culture will do much for promoting growth of our society.

Key Words : multicultural counseling, uniqueness of culture, fortune-telling, internal-attribution, external-attribution